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사례

동네 소식지를 통한 이미지 키우기

홍보물이 범람한다.
 '공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동네 소식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물론 컴퓨터는 필수다.
 동네 알림방 역할을 통해
 이미지가 키워진다.
 □ 편집자 주

글 쓰는 순서.....

- 7월 - 정보전단 제작 사례
- 8월 - 점두상품 발굴 사례

몇 년전 <벼룩시장>이라는 지역생활정보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욕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 하지만 정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생활정보지는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될 수 있었다.

메스컴의 발달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만큼 밖으로 향한 정보욕은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위를 좁혀 동네, 이웃 등 안으로 향한 정보욕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정보라는 말보다는 소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지역생활정보지가 비록 범위를 좁힌 정보를 다루지만 동네의 경조사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신지는 않는다. 그러면 제과점에서 동네, 이웃의 소식을 동네 주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를 소식지로 만들어 배포하면 어떨까?



▲ 신문에 끼워서 들리는 전단은 더 이상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홍보수단

일반적으로 홍보 수단 하면 전단을 떠올린다. 비싼 제작비를 들여 만든 전단을 신문에 끼워서 배포하거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신규 오픈, 재오픈, 사은행사를 할 경우에 실시한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다.

자신의 점포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동네 소식지를 만들면 효과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소식지에 대한 열독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활 터전과 밀접한 소식이 담겨 있어 누구라도 그 내용에 관심이 있다. 동네 소식과 함께 발행처인 제과점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함은 물론이다. 결국 지역 소비자와 밀착된 제과점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작비는 따로 크게 들지 않는다. 복사비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컴퓨터는 필수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편집이 가능하다. 발행 간격은 매달 1번씩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두 번 발행하고픈 욕심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매월 1번씩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도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처음의 마음이 변치않는 것이 중요하다.



글/ 원철희

-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건설공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의식산업고위과정 수료
- 현재 서울 수색동에서 '마드레느 과자점' 경영

지면 구성 사례

지면수는 총 4페이지로 한다. B4지를 반으로 접으면 4개의 면이 만들어 진다. 지면 구성 사례를 각 지면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면 : 표지에 해당한다. 상단에 발행처인 제과점 상호와 전화번호, 발간일, 호수 등을 표시한다. 나머지 공간에는 격언이나 그 달에 제과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 슬로건을 게재한다.

2면 : 표지를 넘겼을 때 왼쪽 지면에 해당한다. 동네소식과 구청소식을 싣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동네 소식>

○ 취미 / 레저

청수낚시회

- 이달 출조 : 안면도 수림 저수지
- 일시 : 18일(일) 오전 6시 출발
- 문의 : 000-0000

태양산악회

- 이달 산행 : 계룡산 감사
- 일시 : 25일(일) 오전 7시 출발
- 문의 : 000-0000

○ 부고

중앙식당 ○○○사장 모친 별세

- 장소 : 명지병원 영안실
- 발인 : 18일(일) 오전 4시
- 장지 : 망우리
- 문의 : 000-0000

<OO구 소식>

○ 신나는 놀이마당

- 일시 : 31일(토) 오후 2시
- 장소 : OO초등학교
- 주제 : 놀며 배우는 민속놀이

○ 제 12기 여성교양대학 수강생 모집

- 대상 : 18세 이상 여성
- 과목 : 자동차정비/ 생활영어
- 접수처 : 구청 가정복지과

○ 결혼

수색슈퍼마켓 000 사장 장남 결혼식

- 일시 : 24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교동 경남예식장 난실
- 문의 : 000-0000

○ 오픈

○○속녀복 수색점

- 대표자 : 000
- 개업식 : 19일(월) 오전 10시
- 전화 : 000-0000

○ 행사

○○스튜디오 예쁜 아가 사진 콘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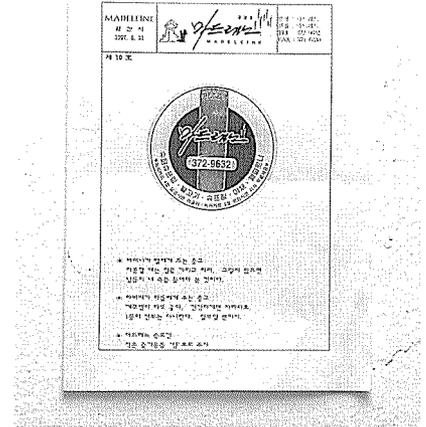
- 행사기간 : 15일까지
- 상품 :
- 문의 : 000-0000

○ 구민 알뜰장

- 일시 : 25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 장소 : 구청 주차장
- 품목 : 의류, 신발, 가전, 도서, 완구, 가구, 학용품
- 주최 : 새마을 부녀회

3면 : 표지를 넘겼을 때 오른쪽 지면에 해당한다. 이 지면에는 제과점 홍보 내용으로 채운다. 그달에 출시된 신상품을 소개하고 특별 행사가 있으면 알린다. 또한 빵 먹는 방법이나 특별한 설비가 없더라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의 제조법을 소개한다.

4면 : 제일 뒷면에 해당한다. 부담없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꾸민다. 이달의 운세나 이달에 가볼만한 곳 등을 소개한다. '가볼 만한 곳'은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맛이 좋은 음식점, 야외 휴식공간, 문화시설 등으로 한다. 특히 여기에 소개되는 곳을 제과점의 협력업체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즉 제과점에서 제공한 쿠폰을 갖고 이들 업소를 이용할 때 음료를 서비스로 제공받는다거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식 수집 및 배포 방법

비록 동네 소식이지만 막상 이를 혼자서 수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것이다. 그렇지만 쉬운 방법이 있다. 동네 유치원 자모회를 통하면 웬만한 이웃들의 경조사는 챙길 수 있다. 또한 동네 미장원 2~3곳이나 조기축구회를 통하면 빈틈이 없다. 취미와 관련된 소식은 낚시 가게나 스포츠용품 가게를 통하면 된다.

지역 구와 관련된 소식은 구청에서 매달 나오는 소식지나 지역 생활정보지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각 구마다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나오는 소식지도 좋은 자료가 된다.

이렇듯 각종 자료를 이용해 소식지를 만들었다면 이를 배포하는 방법이 남는다. 우선 관리하고 있는 고정고객에게 DM으로 발송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장에 비치해 놓고 내점한 고객에게 전달한다. 처음에 부수는 약 500부 안 쪽으로 하면 적당하다. 반응을 보아가며 부수를 조절한다. **101**